

교회소식

-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 모두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나누어 풍성해지는 은총을 기도하며 구제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구제" 명목의 지정 헌금을 보내주시시오.
- 매일성경 5/6 월호가 곧 도착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Starting today, Pastor Edwin will be streaming a service in English at 12:00pm.
The service will be streamed via Zoom.
Details for the service can be found on the church website and the Youth Group instagram page

섬기는 사람들

4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5호

2020년 4월 19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32장(통48장) “만유의 주재” Fairest Lord Jesus
다함께	
헌금 및 감사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3:1-10 Matthew 3:1-10
인도자	
설교 Sermon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지난 주 주일 말씀

내 주는 살아 계셔서 마가복음 16:1-8

그날도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가 새로 시작하는 날, 새 날이 시작하는 아침은 그날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새 날은 왔지만 주님은 여전히 무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채 여전히 다가오는 새 날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도 그 날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경비병의 무기도, 총독의 권력도, 종교지도자들의 음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를 무덤에 매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무덤을 찾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광을 입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현장, 거기서 만나 주신답니다. 부활의 삶은,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하늘 보좌만 기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경하고 당황스런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갈릴리에서 만날 약속을 받고, 제자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여자들은 무서워 도망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국도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여자들이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고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새 옷이 어색한 것처럼, 새 삶은 당황스럽습니다. 옛 것은 익숙하지만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일입니다. 늘 부르던 칸타타도, 늘 나누던 성찬도, 막힌 것 같은 이 부활절 주일에,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새 피조물의 삶을 더욱 생각해 봅니다. 익숙한 옛 사람을 벗고 불편한 새 사람으로 사는 일. 형식적 예배를 벗고 진정한 예배로, 당연히 여기던 관계들이 막힐 때 진정한 교제와 사랑으로, 불결한 영향력이 샘물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기적인 소비 습관을 벗고 모두를 위한 삶으로, 하늘을 잇은 교만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거둬 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어색한, 생경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자발적인 자가 격리 중이었던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평강을 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자들, 제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드립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충분한 소망입니다. 완전한 소망입니다.

<Memo>

